

16세기 조선 기녀의 일반 연회(宴會) 규정복식 고증 디자인 연구 -문화콘텐츠용 이미지 작업을 중심으로-

최 해 율[†]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 · 산업전공학과/생활자원개발연구소

A Study on the Design of Official Costume of 16th Century Ginyeo in Scholar's Banquet -Focusing on the Image Design for Cultural Contents-

Hae-Yool Choi[†]

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Institute for better living, Wonkwang University
(2008. 6. 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official costume of Joseon Ginyeo in the scholar's banquet in 16th century, thereby making correct historical animation, drama costumes, and various costume contents. Every Ginyeo in <hwasan- yangroyeon-do> and <buncheonheonyeon-do> wore a long yellow coat with short front edge. 'Dan-ei', Ginyeo's court costume, had very similar shape except color and collar, therefore the size of Dan-ei was adapted to design a yellow coat for drama actress. Ginyeo's Jogori in these paintings was wide and long enough to cover undervelly under the edge of yellow coat, but It was designed more slim and long for better appearance and comfortable movement in my work. A skirt of Ginyeo was designed with circumference of about 360cm and length of about 105cm according as a skirt style of Joseon ladies in 16th century. Ginyeo's Jam(hairpin) was consist of a vase, a plum blossom, and a lotus pattern. And, a wide underpants with a single suspender, portable pouch, Un-hae(women's shoes) with low heel are needed for drama actress in the role of Ginyeo. In this design, it is very important to save an estimate and time, select suitable morden fabrics, reform discomfortable points, express a charater's role, and make a trendy appearance.

Key words: Design, Ginyeo, Official costume, Dan-ei, Morden fabrics; 디자인, 기녀, 규정복식, 단의, 현대 직물

I. 서 론

현재 각종 영상매체에서는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글로벌 캐릭터로서 기녀들의 존재가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녀 의상에 대한 이

미지는 '전문 예능인의 요염하고 유혹적인 의상'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현재 제작되는 기녀복식은 시대적 특성보다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여 재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넘어 전통의상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더욱 넓히려면, 기녀들의 생존시기와 특정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의상 디자인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 기녀들이 사가(士家)와 관아의 연회에서 입었던 규정복장의 전신착장 모습을 고증 디자인

[†]Corresponding author

E-mail: jeongch@wku.ac.kr

본 논문은 2008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하여, 올바르고 아름다운 드라마 의상 및 2D와 3D 애니메이션 콘텐츠용 자료를 만들기 위한 1차적 고증 이미지 작업이다. 전통의상과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유물이 적은 16세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고증 의상을 착용할 대상은 16세기 초부터 17세기 초까지의 궁중연회를 제외한 규모가 큰 일반연회에 동원된 기녀들이다. 이 시기는 뛰어난 예능인으로 미디어에서 빈번히 다루어진 기녀 이매창(李梅窓: 1573-1610)과 황진이(黃眞伊: 1520-1560년대 추정)의 활동시기이기도 하여, 고증된 디자인의 활용도와 흥미 유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기녀 복식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선행연구로는 남후선(2000), 정옥임, 김경희(2002), 박재선(2003)의 궁중 무용의상에 관한 연구, 장민정(2004)의 조선시대 기녀복식 연구, 최경희(2006)의 논개복식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궁중 무복(舞服)과 평상복, 외출복을 위주로 한 것이 많고 조선 중기 기녀의 일반연회용 규정복식을 중심으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본 연구는 이 점을 보완하여 더욱 다양한 고증복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기녀는 신분이 낮지만 직업과 역할에 의해 패션 리더가 되어야 했던 존재였다. 특히 조선 지방 관아에 소속된 관기들은 관아의 잔치에서 여악을 담당할 뿐 아니라, 독신으로 부임하는 지방관과 사신 및 출장은 관원들의 위안기(慰安妓) 역할을 맡기도 했다(장민정, 2004). 이렇듯 신분 높은 남성을 상대하던 기녀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옷차림이 허용되었는데,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43 세종 11년 2월(신사)를 보면 “금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사대의 자제들의 이환(耳環), 기생의 수식(首飾) 외의 기명에 금은을 녹여 부어 만들기와 도금을 금지할 것이며....” (“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라 하여, 기녀에게는 금은 수식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 권 5의 형전(刑典) 금제(禁制)를 보면 “사족(士族)부녀와 경기(京妓)에게는 사라능단(紗羅綾緞) 의복을 금하지 않는다.”(아세이문화사, 1983)고 기록되었다.

따라서 16세기 무렵의 관기들도 고급 직물로 만든 의상과 귀금속 수식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학궤범(樂學軌範)』 권 9에는 궁중 여기들의 복장 규정(女妓服飾)이 있었으므로, 지방 관아의 관리를 받

던 관기들도 연회에 동원되어 가무를 선보이고 시중을 들 때 착용하는 규정복장을 따로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16세기 기녀의 일반 연회용 규정복식 유물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16세기의 연회도와 『악학궤범』 및 관련 사서에 기록된 연기(女妓) 복식 품목을 중심으로 관찰하려고 한다. 특히 농암 종가의 연회도에 묘사된 기녀들은 모두 비슷한 복식을 착용하고 있어, 이것이 당시의 관기 규정복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중심 자료로 선택했다. 기녀들의 의복재료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6세기 복식의 특성을 지닌 양반가 여인들의 복식 유물도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의상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현대 인체와 직물에 맞도록 디자인하려고 한다. 제작팀에게 디테일과 태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고직물과 도식화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야(Maya)와 퀄로스(Qualoth) 등의 소프트웨어로 제작되는 3D 애니메이션은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패턴과 문양을 읽고 착장모델까지 제작되므로, 사이즈가 명시된 도식화와 패턴 및 직물문양이 제시되면 비교적 정확한 의복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명, 인체, 화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드라마 의상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효순, 원혜은(2004)는 폴리에스테르, 공단, 금사가 많이 섞인 직물은 조명 아래에서 실물과 매우 달라 보이며, 본견, 수직 실크, 자카드 실크, 순면은 조명과 잘 어울리는 직물이고, 사극 의상에는 화장품 수납 장소, 옷을 고정시킬 스냅과 안고름, 미끄럼 방지용 부속품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제 드라마 의상을 제작하려면 화면에 비춰지는 부피감 외에도 연기자의 움직임과 생리현상의 편리함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해결할 디테일을 디자인에 첨가해야 할 것이다.

III. 16세기 기녀의 일반연회 규정복식 고증 디자인

1. 전단후장(前短後長)의 단의(丹衣)형 황의(黃衣)

16세기의 기녀 연회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회화로는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郞官契會圖)> 및 농암 종가(龔巖 宗家)에 소장된 연회도가 있으며, 연회의 규모가 비교적 컸던 농암 종가의 연회도에는 당시 기녀들의 규정복식이 다수 표현되어 있다. <기묘계추화

산양로연도(己卯季秋花山養老燕圖)>는 1519년 안동 부사였던 농암 이현보(李賢輔)가 부모와 사족(士族)을 포함한 관내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관청 정원에서 잔치를 연 광경이었고, <병술중양일분천현연도(丙戌重陽日汾川獻燕圖)>는 1526년에 귀향한 이현보가 고향인 안동 부내에서 양친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이정섭, 2002). 이는 16세기 초중반 조선 문관이 베푸는 일반인 대상의 경로연회 및 개인적인 연회 장면에 대한 기록화였다.

주인공으로 보이는 부인들은 긴 저고리를 걸옷으로 입고 있으나, 음식시중을 들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는 여인들은 거의 모두 저고리와 치마 위에 앞이 짧고 뒷자락이 긴 황색 외투를 일률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이현보의 신분 및 연회의 성격, 여인들이 맡은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림 1-2>의 황색 외투를



<그림 1> <기묘계추확산양로연도>(1519)의 귀부인과 기녀들의 복식(농암 종가 소장).
 자료출처: 한국국학진흥원. (2002).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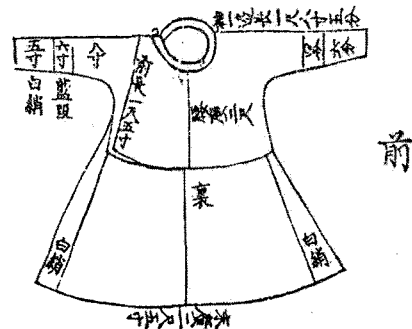
<그림 2> <병술중양일분천현연도>(1508)의 무희들의 복식(농암 종가 소장).
 자료출처: 한국국학진흥원. (2002).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p. 35.

입은 여인들은 행사에 동원된 인근의 관기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이 황색 외투의 명칭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나, 착용시기와 착용자 및 형태를 고려한다면 『악학궤범』 권 9에 묘사된 여기복식(女妓服飾)인 <그림 3>의 단의(丹衣)가 이와 가장 유사한 옷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의(丹衣)는 “붉은 라(羅) 또는 사(紗)로 만들고 안에는 붉은 모시를 대며, 앞이 짧고 뒤가 길며 단령(團領)이고, 소매와 양 겨드랑이에 남색 비단과 흰 초를 꿰맨 옷(丹衣以紅羅或紗爲之 裏用紅苧布 前短後長 領團 袖及左右挾 以藍段白絹連補)”이었다(성현 외, 1493/1978).

단의의 주요 특징인 앞이 짧고 뒤가 긴 모양은 원(元)에서 쿠빌라이 재위기부터 즐겨 입혀진 승마용 정장 비갑(比甲)에서도 나타나며(최해율, 2001), 간편한 정장에 종종 사용되던 형태였다. 단의는 붉은색이며 단령(團領)이 달렸고, 농암 종가 연회도의 외투는 황색이며 깃도 오른쪽으로 여머지는 직령(直領)이어서 재료와 세부 모양은 다르다. 그러나 기녀 복식이며 안에 입은 저고리가 확실히 보일 정도로 앞이 짧다는 점에서 이 황색 외투는 단의와 맥락을 함께하는 옷이 아닐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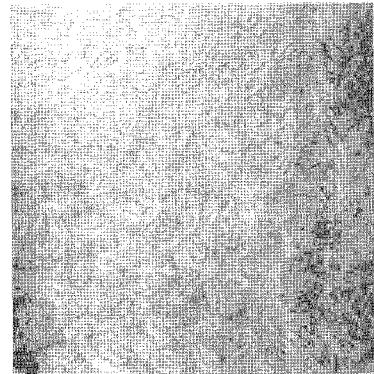
세종 때에 단령이 관복으로 승격한 후 직령은 천인(賤人)과 서민의 의례복이 되었고, 『경국대전』 권 3의 관복제도에 의해 향사(鄉士)와 별감(別監)의 상복(常服)이 되었다(이혜자, 2007). 이런 이유로 인해, 궁중 여기복식이던 단의가 다소 변형되어 지방 관아와 선비 가문의 연회에서는 앞이 짧은 황색 외투가 관기의 규정복장으로 입혀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해 정확한 명칭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의복을 황의(黃衣)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림 3> 단의(丹衣): 여기복식
 자료출처: 성현, 신말평, 유자광. (1493). 악학궤범.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1978). 국역 악학궤범 II. p. 35.

황의를 실제로 제작하기 편리하도록 <표 1>처럼 『악학궤범』의 단의의 치수를 현대 치수로 바꾼 후, 신장 165-170cm과 가슴둘레 86cm 가량의 현대 여성 체형에 맞게 길이를 늘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부피감을 줄이기 위해 폭은 약간 줄여 <그림 4>와 같이 디자인 작업을 전개하였다.

황의에는 『악학궤범』의 단의의 재료를 참조해 황색라 또는 사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태를 살리기 위해 안감으로는 숙련한 모시를 쓰며 고정용 스넵을 첨가하도록 한다. 조선 초기에 황색이 황제의 색으로서 엄격히 제한되었고 조선 부녀자들이 즐겼던 황색은 송화색 및 차자색 계열에 가까우므로(박재선, 2003), 황의의 색상도 간색 계열로 선택하였다. 현재 공중파 사극은 주로 HD(high definition) 방식의 선명한 고해상도 화면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화면에서는 무늬가 없는 직물은 단조로와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되도록 섬세한 무늬가 짜여진 것을 선택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만족시키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황의 재료로 <그림 5>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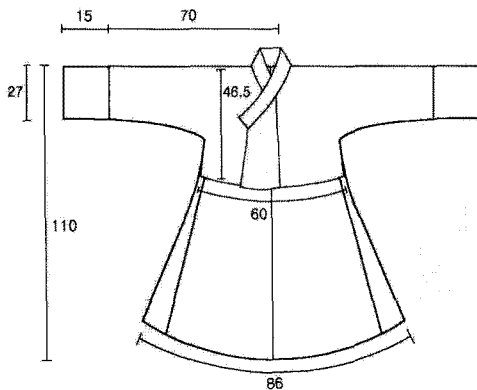
<그림 5> 송화색 도류문사
구입처: 동명실크(한국공중복식직물연구소), 22인치, 7000₩

2.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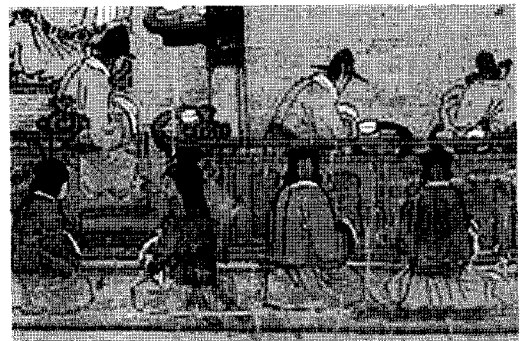
16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저고리는 목판깃에 길이가 매우 긴 저고리였다. 이은주(2000)는 16세기 중엽 일선 문씨 묘에서 출토된 긴 저고리(장저고리) 12점의 뒷길이가 70.5-82.5cm 가량이고 옆트임이 20-35cm로 매우 길며, 뒷길이 50-60cm 가량의 옆트임 없는 단저고리 위에 입혀져 있었고, 고려 말과 조선 초부터 이렇게 짧은 저고리 위에 긴 저고리를 입는 방식이 존재했음을 제시했다. <그림 6>의 16세기 중엽 <호조낭관계회도>의 기녀들은 황의 없이 저고리만 착용했으나 긴 옆트임 사이로 붉은 색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견마기이거나 안에 입은 단저고리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7>의 농암 중가 연회도의 기녀의 저고리는 황의의 앞자락 밑으로 길게 내려온 모양으로, 조선 초 중기 여성용 상의에는 길이 차이를 두어 겹쳐입는 데

<표 1> 단의(丹衣) 치수표

단의(丹衣)	『악학궤범』 치수 (단위:척/촌)	현대 치수 (단위: cm)
앞길이	1척 5촌	45.5
뒷길이	2척 8촌 5푼	86.3
앞단 너비	2척	60.6
뒷단 너비	2척 5촌	75.8
끝동	5촌	15.2
소매길이	5촌/6촌/8촌	57.6



<그림 4> 황의 디자인(Design: 최해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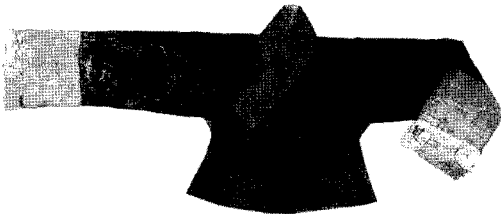
<그림 6> <호조낭관계회도>(1550)의 16세기 기녀의 겹저고리(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자료출처: <http://www.museum.go.kr/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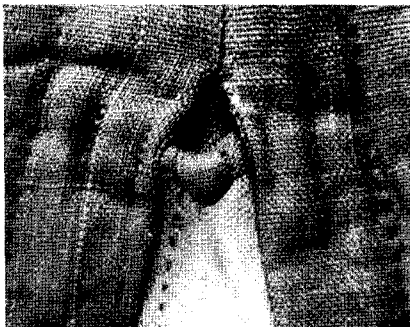
이어드 스타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실록』 세조 2년(1456)의 상소에서도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長衣)를 의상(衣裳) 사이에 입어 3층(層)을 이루며 온나라가 모두 그러하니, 의심컨대 이것은 ‘복요(服妖)’입니다.”(“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라고 하여, 모양과 입는 순서는 다소 다르지만 서로 길이가 다른 옷들을 층지게 겹쳐 입는 형식이 조선 초중기에 유행했음이 드러난다. 또한, 등길이 70cm 전후의 여성용 저고리는 17세기 초반의 동래 정씨 묘에서



<그림 7> <기묘계추화산양로연도> (1519)의 황의 및 저고리(농암 종가 소장)
 자료출처: 한국국학진흥원. (2002).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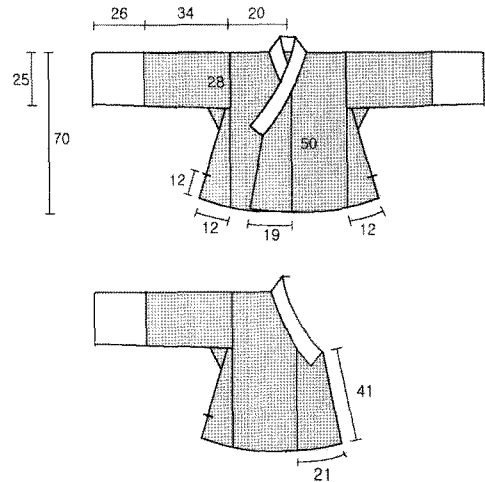
<그림 8> 이응해 장군묘 출토 여성용 저고리
 자료출처: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p.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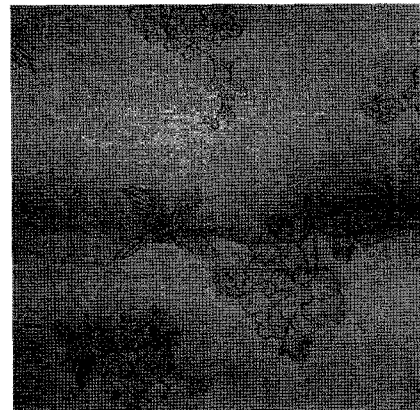
<그림 9> 이응해 장군묘 창의의 옆트임 부분
 자료출처: 충주박물관.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p. 67.

도 발견되어(송미경, 2007) 당시의 저고리 길이를 짐작케 한다.

농암 종가 연회도의 기녀용 저고리는 색이 바탕색과 같은 반회장 또는 민저고리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림 8>은 이응해 장군(1547-1626)묘에서 발견된 등길이 54cm의 여성용 반회장 저고리로서(충주박물관, 2004), 목판깃과 직배래라는 16세기 저고리의 모양을 간직하고 있으며 16세기의 유물보다 폭과 소매가 좁아 황의 밑에 반쳐입어도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디자인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황의 밑으로 넉넉하게 저고리 밑단을 내리면서도 착용자의 신장을 길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림 10>과 같이 등



<그림 10> 기녀의 저고리 디자인 (Design: 최해물)



<그림 11> 청록색 화조견
 구입처: 동명실크(한국궁중복식박물관연구소), 22인치, 7000₩

길이를 약 65-70cm로 하고, 폭은 다소 좁혀 겹쳐입기 편리하도록 수정하였다. 김영재(2004)는 이용혜 장군묘 창의를 옆트임에 사용된 <그림 9>의 매듭장식을 긴 옆트임이 터지지 않게 보강하는 장식으로 보았다. 이 역시 시대의 특성을 살리는 디테일로서 응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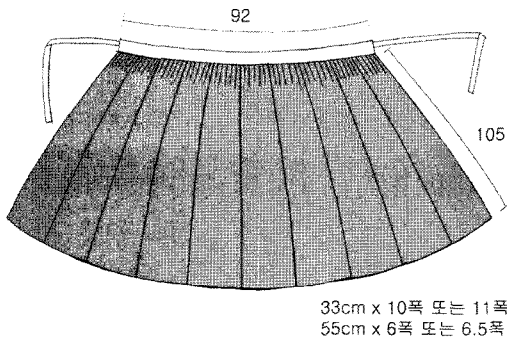
기후가 온화한 계절의 관기들의 연회복식이므로, 얇고 부드러우며 화사한 태를 지닌 시중 직물 중에서 <그림 11>과 같이 황의와 선명한 색상대비를 이루는 청록색 화조견을 선택하였다.

3. 치마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 출토된 유물치마들은 예복용 치마를 제외하면 대부분 길이는 82-99cm 전후, 밑단 나비는 306-362 cm 전후로서 비교적 일정한 실루엣을 유지하고 있다(문화재청, 2006). 예를 들어 17세기 초기의 동래정씨(1567-1631) 묘에서 발견된 여러 벌의 치마는 길이 83-89cm, 밑단 나비 302-370cm로 실루엣이 일정하며, 1폭의 나비는 치마가 6폭일 때는 50-60cm, 7폭일 때는 50cm, 10폭일 때는 35 내외였다(송미경, 2007). 즉 이 시기의 치마에는 다양한 폭의 직물을 사용했지만, 폭수를 조절하여 밑단 너비를 일정하게 맞춘 것을 알 수 있다.

농암 종가 연회도의 기녀치마는 위의 유물들과 유사한 부피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 직물은 대부분 33cm, 55cm, 110cm으로 제작되므로, 16세기 직물의 폭과 치마 실루엣 및 현대 여성의 치마 길이에 맞추려면 <그림 12>처럼 허리둘레 약 92cm, 길이 105cm 이상, 33x10-11폭, 55x6-6.5폭이라는 조합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연회복식 특유의 화사함을 살리기 위해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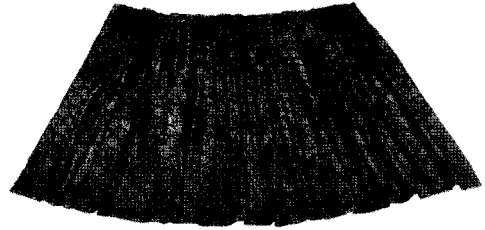


<그림 12> 기녀의 치마 디자인(Design: 최해울)

적이 넓은 치마 부분에 무늬 있는 직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박통사연혜』에서는 암화(暗花)비단을 스핀문 비단, 즉 문양이 스며있는 것 같은 비단이라고 불렀다(심연옥, 2004). 이는 <그림 13>의 전 박장군묘 치마를 비롯해 16-17세기 초의 출토유물 직물로도 빈번히 발견되었는데, 자카드 실크의 일종으로 은은한 무늬가 고해상도 화면에 어울리며 조명을 잘 받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증직물이어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6세기 기녀의 치마 직물로는 자카드 직물로 화사한 느낌을 지닌 <그림 14>의 연화문단(蓮花紋緞)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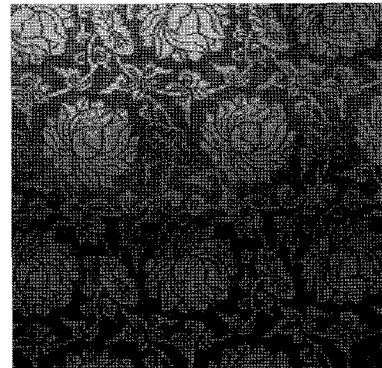
4. 머리 장신구와 헤어스타일

앞서 밝혔듯이 『세종실록』을 보면 기녀의 수식(首飾)은 금과 은의 금제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기녀들이 고위급 관리를 접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관아 연회를 위한 관기의 장신구 재료



<그림 13> 전 박장군묘 출토 화문단 겹치마(충북대학교 소장)

자료출처: 조효숙, (2006). 청원 전 박장군묘 출토유물. 문화재청 (편),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 편, p.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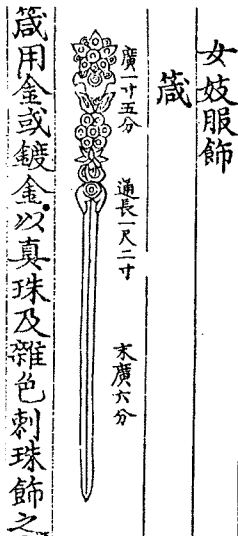


<그림 14> 홍색 연화문단

구입처: 동명실크(한국궁중복식직물연구소), 22인치, 7000₩

를 선택할 때도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머리꽃이에 대해서는 『악학궤범』권 9에 “여기의 잠(箴)에는 금을 쓰거나 도금하고, 진주와 갖가지 달주(刺珠) 또는 가주(假珠)로 꾸민다(箴用金或鍍金 以眞珠及雜色刺珠飾之 或用假珠).”(성현 외, 1493/1978)라고 기록되었다. 이것은 <그림 15>에 나타나듯 화병(花瓶), 매화, 연화의 도안이 차례로 이어지는 모양이며, 이와 비슷



<그림 15> 『악학궤범』의 여기용 잠

자료출처: 성현, 신말평, 유자광. (1493). *악학궤범*.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1978). 국역 악학궤범 II. p. 21.



<그림 16> 국립전주박물관 소장품 고려 봉잠

자료출처: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 2천년*. p. 47.

한 잠은 <그림 16>의 국립전주박물관의 고려 봉잠 및 하연부인의 초상화에서도 나타난다. 유사한 모양이 여러 번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이 잠은 당시의 정형화된 유행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악학궤범』의 잠은 길이 33cm, 고려 유물은 22.3cm에 달하며, 가장 눈에 띄는 꾸미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져 16세기의 관아와 사가의 연회에 참석한 기녀 중 고위급 기녀의 두발장식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궁중 연회용이 아니므로 저렴한 재료를 써서 차이를 둘 수 있다.

16세기 전후의 회화에 나타난 조선 초중기 기녀의 두발양식은 윗부분은 틀어올리거나 쌍각(雙角)으로 올리고 아래는 양갈래로 나누어 둥글린 형태로서, 가체를 이용하되 17세기의 거대한 머리모양과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시각적 효과와 고정 효과를 위해 붉은 땀기 및 작은 비녀인 채(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악학궤범』권 9를 보면 “쭈머리를 올린 여기는 금으로 만들거나 도금을 하고 진주로 장식한 차(釵)를 쓴다.”(성현 외, 1493/1978)라고 규정되었으나, 일반 연회용으로는 은과 준보석을 비롯하여 좀더 저렴한 고소박한 재료를 쓰도록 한다.

5. 내의(內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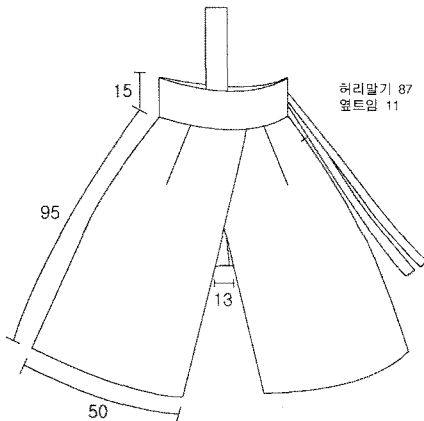
16세기의 적삼 출토유물들을 참고하면, 내의의 상의(上衣)는 길저고리보다 짧고 좁고 형태가 단순하며 땀의 흡수가 잘 되는 재질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겹옷이 이미 레이어드 스타일로 겹쳐지므로, 드라마 연기자의 의상을 만들 때는 부피감을 줄이기 위해 내의용 저고리를 생략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와 17세기 초반의 여성 하의(下衣) 출토유물을 보면 이 당시에도 여러 겹의 속곳을 겹쳐입었음을 알 수 있다. 송미경(2007)은 17세기 초 동래정씨 묘에서 밀이 막힌 단속곳, 밀이 터진 솜누비 바지, 작은 삼각형 무가 달린 밀이 터진 겹바지가 발견되었고 안쪽부터 차례로 입었음을 밝혔다. 백두현(2006)에 의하면 <그림 17>의 16세기 후반 순천김씨 묘의 명주 솜누비 바지는 밀이 트인 개당고(開襠袴)인데 바지의 흘러내림을 막기 위해 어깨끈을 달았고, 이런 방식은 16세기 중엽 일선 문씨 묘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이 바지는 밀이 박힌 합당고(合襠袴) 위에 입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16세기 기녀의 속곳으로는 합당고 위에 개당고를 겹쳐입는 형식이 적합하지만, 연기자 및 애니



<그림 17> 16세기 후반의 개당고(충북대학교 소장)
 자료출처: 백두현, (2006). 청주출토 순천김씨 의복 및 간찰.
 문화재청 (편),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
 자료 편, p. 279.



<그림 18> 개당고 스타일의 속바지 디자인
 (Design: 최해울)

메이션의 기녀 캐릭터가 입을 속곳은 움직일 때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얇은 겹바지 한 점으로 하고, <그림 18>과 같이 16세기의 순천 김씨 유물처럼 개당고이며 어깨끈 한 줄이 달린 모양을 선택하였다. 이는 시기적으로 16세기 기녀의 속곳으로도 적합하며, 장시간 대기하고 화장실에 출입해야 하는 연기자에게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녀의 치마를 부풀리기 위한 속치마로는 모시 무지기 치마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드라마 의상인 경우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 시중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6. 신발

치마 밑으로 때때로 드러나는 신발은 기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해 주는 소품 중 하나이다. 예용해(조선회에서 재인용, 2005)는 여염집 부인용이며 볼이 넓은 계혜에 비해 기녀들의 기혜는 신율이 얇고 불편하지만 맵시가 있는 신으로 보았다. 17세기 초 동래정씨 묘에서는 운혜와 비슷하지만 볼이 넓으며 신율이 화문단으로 제작된 습신이 발견되어(송미경, 2007) 당시 양반가 부녀자들의 신 모양을 짐작케 한다.

16세기 기녀의 관아 연회용 신발을 디자인할 때는 맵시를 위해 신율을 낮출 수도 있으나, 연회의 특성상 기녀들이 바쁘게 시중을 돌고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운혜를 응용하여 볼을 넓히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드라마 용으로는 제작시간을 절약하고 연기자의 신장을 늘리기 위해 뒷축을 높은 운혜 형태의 신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마 아래로 굽이 드러나 위화감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마의 길이에 주의하고 굽의 높이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7. 주머니

전통 의상에는 소지품을 지닐 주머니가 필요하며, 특히 향과 단장 도구를 지녀야 하는 기녀들의 의상에는 반드시 장식적인 주머니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출토유물에서는 자갈한 주름을 잡은 염낭용 염낭주머니가 자주 발견되는데, 그만큼 염낭주머니의 쓰임새가 다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량의 입체적인 소지품이 들어가는 염낭의 형태는 조선 중기 기녀들도 보편적으로 지닐 만한 스타일로 생각되며, 염낭의 형태가 시대별로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염낭의 디자인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장식효과를 겸할 필요가 있으므로 치마색과 보색인 직물 및 금직단과 자수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현대적인 느낌의 제품은 피한다. 드라마 의상인 경우에는 착용자들의 화장품과 동전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비교적 크기가 크고 내구성 강하며 두터운 재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IV. 전신착장 상태의 디자인

위에서 도출된 디자인을 종합하여, 16세기 기녀의

<표 2> 16세기 조선 기녀의 일반 연회용 규정복식 품목과 재료

의복 종류	형 태	재 료
표의(表衣)	단의(丹衣)형 황의	황색 도류문사
저고리	목판깃, 등길이 65-70cm의 긴 저고리	청록색 화조견
치 마	6-10폭, 둘레 360cm 가량	홍색 연화문단
내의(內衣) 상의	적삼(생략 가능)	숙련한 모시
내의(內衣) 하의	개당고 스타일 속바지, 무지기치마	모시 또는 사
잠(箴)	「악학궤범」의 잠 형태	도금, 낫쇠, 인조 보석
차(釵)	「악학궤범」의 차 형태	은, 낫쇠, 인조 보석, 철보
주머니	크고 넓은 엽낭	두터운 명주, 전통 자수, 술(기성품 가능)
댕 기	제비부리형 장식댕기	홍색 사, 금박
신 발	폭이 넓은 운혜	가죽, 공단, 자수(기성품 가능)



<그림 19> 16세기 조선 기녀의 일반연회용 규정복식 전신착장 디자인(Design: 최해울)

일반 연회용 규정복식의 전신착장 모습과 의복의 참고재료를 <그림 19>와 <표 2>로 제시한다. 16세기의 연회도 및 출토복식의 모양을 따르되, 다소 슬림하고 긴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여 영상물로 제작될 때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재료로는 시중 직물 중 16세기의 관련 사료 및 출토유물에 제시된 직물과 유사한 태를 가졌고 고해상도 화면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직물을 선택하고, 규정복식의 형태 및 연회에 어울리는 화사한 느낌을 동시에 중시하였다.

V. 결 론

16세기 관아와 사가(士家)의 경로연회에 참석한 관기들의 규정복식은, 남성 관리의 위안기로서보다는 모든 내빈의 흥을 돌고 연회를 원활히 진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유니폼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암 종가의 연회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16세기 기녀의 일반연회용 규정복식은 전단후장(前短後長) 스타일의 황의로서, 궁중 여기의 단의(丹衣)와 비슷하며 활동성을 강조한 의상으로 여겨진다. 단의의 치수를 참고하여 현대인의 인체에 맞는 사이즈로 황색 사로 된 황의를 다시 디자인하고, 이와 함께 입는 저고리와 치마는 부드러우며 선명한 색상의 직물로 16세기의 직선적인 실루엣과 겹침의 효과를 유지하도록 디자인하여, 시대적 특성 및 연회에 어울리는 화사함을 드러내었다.

머리 장신구와 헤어스타일에서도 16세기의 형태를 되도록 따라서 디자인하여, 시대적 특성과 기녀들의 역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상을 입을 연기자(연회)의 신체사이즈와 활동성 및 트렌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길이를 늘리고 부피를 줄여 다소 슬림한 실루엣으로 만들고 속곳에 어깨끈을 넣고 주머니의 내구성과 크기를 늘리는 등 세부사항을 개량하였다. 제작시간과 예산 절약을 위해 사이즈를 표기한 도식화를 제작하고, 참고 직물로는 고해상도 화질과 조명에 맞는 섬세한 무늬가 있고 반사가 적으며 문헌 및 당시의 출토유물 직물과 가장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시중 직물이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자료가 적은 16세기 조선 기녀의 일

반연회용 규정복식에 대한 효과적인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의상 구현을 위한 자세한 정보를 미리 마련하기 위한 고증 디자인 이미지 작업이다. 2D와 3D 애니메이션 의상인 경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도식화 또는 패턴 및 직물자료가 제공되면 실물제작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드라마 의상인 경우에는 실물제작 및 카메라와 조명을 거친 후 도출된 장단점과 개선점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후속연구에서 진행시키기로 한다. 또한 16세기 기녀의 일반연회용 규정복식 뿐 아니라 특정 상황과 시대를 잘 드러내는 여러가지 실용적인 의상 고증 디자인이 전통문화콘텐츠로서 꾸준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복식 2천년*. 서울: 신유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2005). *호조낭관계회도*. 자료검색일 2008, 3. 1, 자료출처 <http://www.museum.go.kr/kor/>
- 김영재. (2004). 이용해 출토복식의 바느질법과 특성. *충주 박물관 (편), 이용해 장군묘 출토복식* (pp. 157-166). 서울: CMCad.
- 국역 조선왕조실록. (2004). *KoreaA2Z 동방미디어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자료검색일 2008, 3. 22, 자료출처 <http://www.koreaa2z.com/si199/index.html>.
- 남후선. (2000). 朝鮮 後期 宮中 舞蹈 服飾의 服色思想 研究(I) -육화대, 무산향, 춘앵전을 중심으로-. *복식*, 50(4), 73-87.
- 도량형 환산표. (2002). *공구사랑*. 자료검색일 2008, 03. 24, 자료출처 <http://www.mok09.co.kr/data/change.htm>.
- 문화재청.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 편*. 대전: 금강인쇄사.
- 박재선. (2003). *보才 服飾 色彩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두현. (2006). 청주출토 순천김씨 의복 및 간찰. *문화재청 (편), 문화재대관: 중요민속 자료 ② 복식자수 편* (pp. 274-281). 대전: 금강인쇄사.
- 성현, 신말평, 유자광. (1493). *악학궤범*.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1978). 국역 악학궤범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송미경. (2007). 17세기 전기 여자 염습의(殮襲衣)의 일례-김확 배위 동래정씨(1567-1631)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10(2), 129-140.
- 심연옥. (2004). 이용해 출토복식 직물연구. *충주박물관 (편), 이용해 장군묘 출토복식* (pp. 169-199). 서울: CMCad.
- 아세아문화사. (1983). *朝鮮王朝法典集書: 『經國大典』*. 서울: 아세아문화사.
- 이은주. (2000). 16세기 중엽의 上衣類에 대한 조형적 고찰 -경북 안동시 정상동 -善文氏 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5), 119-140.
- 이정섭. (2002). 문중 유물의 성격과 특징-경북 북부지방의 전적과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국국학진흥원 (편),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pp. 150-160). 서울: 대성당인쇄사.
- 이혜자. (2007). 17·18세기 耆老宴圖의 官僚服飾 研究. *복식*, 57(5), 112-122.
- 장민정. (2004). *조선시대 기녀복식(妓女服飾) 연구*. 한국의 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임, 김경희. (2002). 궁중 무용의상에 관한 연구-유럽 일반 복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52(7), 123-138.
- 조선희. (2005). 전통시의 조형미와 제작실태에 관한 연구(I) -운혜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8(3), 55-63.
- 조효숙. (2006). 청원 전 박장군묘 출토유물. *문화재청 (편),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복식자수 편* (pp. 318-329). 대전: 금강인쇄사.
- 조효순, 원혜은. (2004). 사극 드라마 의상제작에 관한 연구 -제국의 아침과 무인시대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7(3), 99-111.
- 최경희. (2006). *조선 중기 기녀복식에 관한 연구-진주 '논개'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율. (2001). *몽골여자복식의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충주박물관. (2004). *이용해 장군묘 출토복식*. 서울: CMCad.
- 한국국학진흥원. (2002). *선비, 그 멋과 삶의 세계*. 서울: 대성당인쇄사.